

‘숙련 기술인 축제’ 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 6일 팡파르

市 33개 직종 278명 참가
道 34개 직종 249명 경쟁
기능 인재 양성 요람 역할

지역 숙련기술인의 축제인 광주·전남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6일 개막한다. 광주·전남 기능경기위원회는 2일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숙련기술인들이

참여하는 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1개 경기장에서 용접, 보석가공 등 33개 직종에 총 278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각 분야별로 그동안 갖고 있던 기술을 겨루며 지역 대표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남 지역은 순천·여수·나주시와 해남·화순·무안군 등 6개 시군, 9개 경기장에서 대회가 진행된다. 한국폴리텍대학 순천캠퍼스 등을 포함한 경

기장에서 냉동기술, 자동차 페인팅, 헤어디자이너 등 34개 직종에 249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시작돼 올해로 60회를 맞은 전통 있는 행사로, 우수 숙련기술인을 발굴·표창하고 기술 수준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회 입상자들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취업-후학습’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으며 기능 인재 양성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

다. 입상자에게는 상급과 함께 해당 직종 기능사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오는 8월22일 인천 시에서 열리는 ‘제6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전남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대회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062-970-1737)와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061-720-852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옥균 광주시 기능경기대회 운영위원장은

“광주지역 우수 기능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그동안 갖고있는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끄는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훈 전남도 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도 “전남도의 비전인 ‘세계로 뚫어주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에 걸맞게 선수들이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더 큰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대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트럼프 ‘종전’ 대신 ‘타격’ 발언에 韓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 하락전환

상승 출발한 코스피 4.5% 급락 마감
닛케이255 2.4% ↓·대만가권 1.8% ↓

이란과의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며 시장에 안도감을 불어넣은 지 불과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향후 2-3주에 걸쳐 이란에 ‘극도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시장이 원했던 것은 종전과 관련한 선언이었는데 오히려 타격 선언이 나오며 찬물을 끼얹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4.65포인트(4.47%) 내린 5,234.05로 장을 마쳤다. 전날 8.44% 급등한 데 이어 이날도 1.33% 오른 채 출발한 코스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

설 시작을 전후해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을 보인다 오전 10시17분께 결국 하락전환했다. 이후에도 낙폭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오후 2시34분과 46분에는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시장에서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기도 했다. 여타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전날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정보서비스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 255 지수는 0.61% 오른 54,066.88으로 개장했으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전환해 2.38% 내린 52,463.27로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 역시 1.82% 하락했다. 한국시간 오후 3시46분 현재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0.81%와 1.62%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홍콩 항셱지수는 1.28% 하락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뉴스와 코스피가 나오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20원 가까이 반등했다. 코스피는 244.65포인트(4.47%) 하락한 5,234.05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도 59.84포인트(5.36%) 떨어진 1,056.34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전, 사내·외 전문가 참여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출범

사고 예방·대응 체계 등 구축

한국전력은 2일 “전날 나주 한전 본사에서 한전-수탁사-자문기관 합동으로 전사적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AI 기술의 확산과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중한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KEPCO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는 경영관리부 사장을 위원장으로 본사 및 사업소 책임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 자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사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또한, 실질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정책’, ‘수탁사 협력’, ‘유출사고 대응’ 등 3개의 실무 분과를 구성·운영해 현장 밀착형 개인정보 업무의 보호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및 안정성 확보 관리 감독 ▲한전-수탁사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 직원 자율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캠페인, 정기점검,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시행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안중은 한전경관부사장은 “데이터의 가치만큼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재만기자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노란우산 가입 행사

이달 PC·모바일 가입시 주유권 증정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4월 한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일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기업·소상공인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주유권 쿠폰(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지급되는 주유권 쿠폰은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SK에너지·GS칼텍스·에스오일·

HD현대오일뱅크)를 아우르는 통합 구성으로,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주유소 접근성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프로모션 및 노란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8889.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광주전남 지역의 2026년 1분기(1-3월)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수는 4천9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3천619명) 대비 38.1% 늘어났다. 광주전남 지역의 가입 채널별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수는 금융기관(2천674명), 공제상당사(1,256명), 온라인(989명), 기타(80명) 순이며 특히 온라인 가입자수가 전년 1분기 실적(746

명) 대비 32.5%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도 4월 현재 재적 가입자 187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노란우산 가입시 소득공제 혜택(연 최대 600만원)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도 놓치면 안되는 혜

택 중 하나다. 올해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희망장려금으로 총 21억원(광주 10억원, 전남 11억원)을 지원한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로 해당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확대를 위해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광주는 월 2만원, 전남은 월 3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제도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부터 가입확대를 위해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임경준 광주전남중소기업회장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쁘고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노란우산이라는 든든한 안전망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혜택 증진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시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